

이스라엘-헤즈볼라 전면전 ‘초읽기’…국제사회 설득 나서

레바논·시리아 접경 골란고원 축구장에 로켓…어린이 등 12명 사망 이스라엘 “헤즈볼라 레드라인 넘어…학살에 대응” 여론도 강경 모드

어린이와 청소년 12명이 희생된 헤즈볼라의 골란고원 로켓 공격으로 이스라엘의 전면적인 보복 공격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제사회가 긴급히 움직이고 있다.

28일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골란고원 로켓 공격의 배후로 헤즈볼라를 지목하고 강력히 비난했다.

에이드리언 왓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이 공격은 레바논 헤즈볼라에 의해 수행됐다”며 “이는 그들의 로켓이었고, 그들이 통제하고 있는 지역에서 발사됐다”고 말했다.

또 성명은 “미국은 또한 블루라인(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의 국경)을 따라, 모든 공격을 종식하고, 양측 민간인들이 안전하게 자신들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외교적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로켓 공격을 규탄하면서도 “이스라엘 정부와 대화하고 있으며 충돌이 악화하거나 확산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과거 레바논을 통치했고 분리독립 이후에도 활발한 교류 협력 관계를 이어온 프랑스도 이스라엘의 레바논 전면 침공을 우려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에서 헤즈볼라의 로켓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모든 분쟁 당사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확산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헤니스-플라사르트 유엔 레바논 특별조정관과 아홀도 라자로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사령관도 공동 성명을 통해 “역내 전체를 재앙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치열한 교전을 중단시키기 위해 최대한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전날 이스라엘과 레바논·시리아 접경지대인 골란고원 마즈달 삼스의 한 축구장에 로켓이 날아들어 어린이와 청소년 등 12명이 사망했다.

이스라엘군은 공격의 주체로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를 지목하고 레바논 내 헤즈볼라 시설 여

러 곳에 보복 공격을 가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성명에서 “헤즈볼라가 모든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자위권을 행사해 학살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고,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장관도 “헤즈볼라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4시간 동안 진행된 이스라엘 안보 내각 회의에서 각료들은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국방부장관에게 헤즈볼라 로켓 공격에 대한 대응 수위와 시기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했다고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전했다.

가자전쟁을 둘러싼 네타냐후 총리와 갈데 끝에 전신내각에서 탈퇴한 야권 지도자 베니 간츠마저 “레바논을 뛰어넘어라”고 촉구하는 등 이스라엘내 여론은 강경 대응으로 모아졌다.

다만, 압달라 부하비브 레바논 외무장관이 관련 국가들로부터 이스라엘의 공격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는 이스라엘 히브리어 매체들의 보도도 나와 향후 이스라엘의 대응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골란고원은 애초 시리아 영토에 속해 있었으나 이스라엘이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을 계기로 점령하고 1981년 골란고원 법을 제정해 자국 영토로 병합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골란고원



28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레바논·시리아 접경지대 골란고원의 마즈달삼스 지역에서 축구장 로켓 공격으로 사망한 어린이와 청소년 12명의 관을 주민들이 운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병합을 인정하지 않는다.

헤즈볼라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되자 하마스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표명하며 이스라엘과 무력 충돌해왔고, 최근 이스라엘군의 보복 공습에 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사망하자 공격 수위를 높였다. /연합뉴스

베네수 마두로 3선 성공... ‘부정선거’ 후폭풍

18년 장기집권 ‘길달기’... ‘압승 기대’ 민주 야권·국제사회 반발

니콜라스 마두로(61·2)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 속에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며 3선 고지에 올랐다.

그러나 친(親) 여당 성향의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CNE)가 실시간 개표 상황을 공개하지 않고 개표 과정 참관을 원하는 시민 그룹을 차단하면서 야권과 국제사회 등에서 부정선거 의혹 제기가 이뤄지고 있어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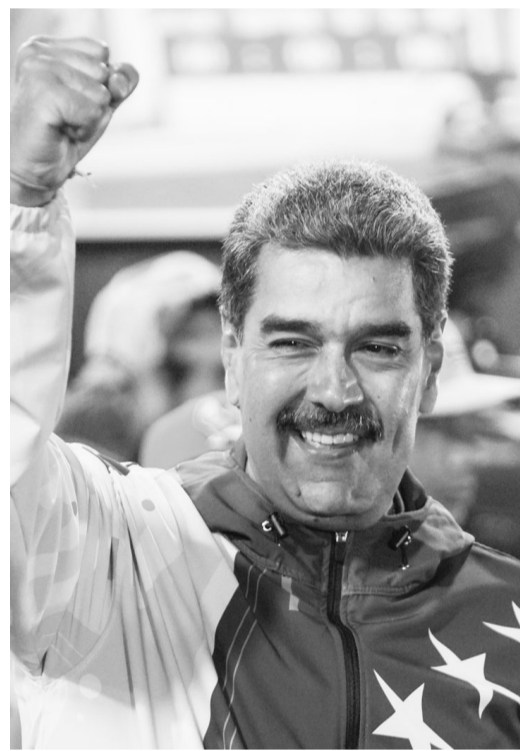
이번 투표 결과는 서방 언론의 출구조사 결과와도 상반되는 것이다.

엘비스 아모로스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장은 공식 투표 종료 후 약 6시간 지난 29일 0시 10분께 “80% 가량 개표한 결과 마두로 대통령이 51.2%의 득표율로 1위를 기록했다”며 “2위 후보와의 득표율 차이를 볼 때 마두로 대통령 당선은 불가역적 추이”라며 당선 사실을 공식화했다.

중도보수 성향 민주야권의 에드문도 곤살레스(74) 후보는 44.2%의 득표율을 보였다고 아모로스 위원장은 덧붙였다.

이에 따라 2013년 처음 대권을 잡은 마두로 대통령은 내년부터 2031년까지 6년 더 베네수엘라를 이끌게 됐다. 임기를 마치면 무려 18년 간 장기 집권하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베네수엘라에는 1999년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이후 30년 넘게 좌파 통합사회주의당(PSUV) 일당 ‘차비스모’ 체제가 유지되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차비스모는 차베스 전 대통령 이름에서 유래한 용어로, 일반적으로 중앙집권적 민족주의 포퓰리즘 성향의 사회주의를 통칭한다.

마두로 대통령은 중남미 대표적인 반미(反美) 주의자로, 최근 수년 간 이어진 경제난의 주요 원인

은 미국 탓으로 돌리고 있다.

미국 정부는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탄압 등을 이유로 베네수엘라 석유·가스 산업을 중심으로 강력한 경제 제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결과의 투명성 등을 놓고 국제사회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중도보수 민주야권 측은 부정선거라며 반발하고 있다.

당장 전날 밤과 이날 새벽부터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나와 대기 줄을 만들 정도로 뜨거웠던 열기에 “개표 결과가 매우 기다려진다”며 승리를 예상했던 민주야권 측은 선관위 발표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번 대선 출구조사에서 곤살레스 후보가 65%의 예상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에 비해 마두로 대통령의 예상 득표율은 31%에 그쳤다.

피선거권 박탈 이후 곤살레스 후보와 함께 세를 이 선봉에 섰던 ‘베네수엘라 철의 여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56)는 투표 종료 후 1시간여 뒤 선거 캠프를 찾아 “국민 여러분께서는 투표소에서 철야하며 개표 과정을 지켜봐 달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결국 마차도의 ‘불안한 예상’이 현실화하면서 경우를 따라선 야권 지지자를 중심으로 한 선거 불복 운동이나 주민들의 국외 이탈 등 베네수엘라 사회가 혼란에 빠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두로 대통령은 내년 1월 10일 새로운 임기 6년을 시작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日 국민 80% “기시다, 9월까지만 하길”

20%대 지지율 속 25%는 “지금 당장 총리 교체”

사실상 일본 총리가 될 차기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를 두 달가량 앞두고 기시다 후미오 내각 지지율이 여전히 ‘퇴진 위기’ 수준인 20%대에 머물러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국민 절반 이상은 기시다 총리가 오는 9월까지만 총리직을 수행하기를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니혼게이지이신문(닛케이)과 TV도쿄는 지난 26~28일 18세 이상 남녀 7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전달보다 3%포인트(p) 상승한 28%로 나타났다. 기시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이 기간 3%p 하락한 64%였다.

기시다 총리의 총리 재직 기간 관련 질문에

‘9월 자민당 총재 임기 만료까지’가 55%로 가장 많았다.

‘즉각 교체 희망’이 25%였으며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총리 재선을 전제로 한 ‘가능한 한 길게’는 13%에 머물렀다.

총리가 중의원(하원) 해산을 언제 하는 게 좋냐는 질문에는 ‘가을까지’가 33%로 가장 많았다. ‘연말까지’(16%)를 포함하면 49%가 올해 안에 해산을 요구했다.

차기 자민당 총재 선호도 순위에서 기시다 총리는 이시바 시게루(24%) 전 자민당 간사장,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15%) 등에게 크게 뒤진 5위(6%)를 기록했다.

일본에서 30%에 미치지 못하는 지지율은 정권 퇴진 위기 수준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

고대 로마인의 560km 길 ‘아피아 가도’ 세계유산 지정

고대 로마인들이 건설한 국도인 아피아 가도(Via Appia Antica·Appian Way)가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으로 지정됐다.

28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아피아 가도는 델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 회의에서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됐다.

이로써 이탈리아는 단일 국가로는 가장 많은 60개의 세계유산을 보유한 국가가 됐다.

‘길의 여왕’(Regina Viarum)으로 알려진 아피아 가도는 로마와 남부 플리아주의 브린디시 항구를 연결하는 총연장 560km의 길로 도로 건설에 혁명을 일으켰다.

첫 번째 구간은 기원전 312년 로마의 정치가 아피아우스 클라우디우스 카이쿠스가 건설했으며 군사적 목적의 전략적 회랑의 역할을 수행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